



기다림 ... 팽목항에 이어지는 발길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희망의 빨간등대'와 '하늘나라 우체통'이 있는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진도 팽목항=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 주도 정권교체...정치 새판짜기

3당 체제 '호남정치'

20대 총선 호남 민심

20대 총선 이후 호남정치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결론난 총선에서 호남은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당인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치평론가와 유권자들은 갖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분석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대단히 복잡한 생각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광주일보는 세 번에 걸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호남 정치의 현주소와 호남민심의 실체를 분석하고 향후 호남정치의 길을 조망한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본거지였다. 군부독재 시절, 이어진 잔존세력의 폭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주화 투쟁을 이어나간 성지였다.

그리고 민주화가 완성단계에 이른 어느

'친노정당'에 희망 없다...국민의당으로 호남 제1당 교체 지역 목소리 키우고 정권교체 가능하게 '3당 체제' 선택

시점, 더는 폭력투쟁이 의미도 실력력도 없어진 그 무렵부터 호남은 투표로 한국 정치를 이끌었다. 야권의 본거지·덧받·심장부 등 수석어는 여기서 비롯됐다. 또 호남은 '노무현 광주 경선 승리' 등 선진적 투표행위로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에도 호남은 투표로 한국 정치권에 비판과 고언을 쏟아냈다.

호남은 이번 총선에서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 가장 주목받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호남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새천년민주당을 누른 이후 12년 만에 제1당의 간판을 바꿨다. 당시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호남 31석 중 25석(광주 7석, 전남 7석, 전북 11석)을 차지했다. 광주와 전북은 석권이었으며 전남은 13석 중 7석을 차지했다. 이번엔 국민의당은 호남 28개 의석 가운데 23석을 휩쓸었다. 광주에서는 8석을 싹쓸이했고, 전남에서 10석 중 8석, 전북에서 10석 중 7석을 각각 차지했다. 수치상으로 당시엔 열린우리당이 80.6% 의석을 점유했으나 이

번에는 국민의당이 82.1% 점유율을 기록했다. 12년 전보다 더 강한 표의 집중도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국적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민심의 정국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호남 총선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반(反)문재인' 정서로 나타난 진노(진노무현)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이자 '친노정당'의 대권도전에 대한 한계 지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즉, 여전히 더민주를 '친노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호남이 여권을 심판하지 않고 제1당을 심판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SNS상에서는 일명 '친노문배'로 일컬어지는 세력들이 호남총선 결과를 놓고 '호남의 자폐성' '호남 자민련' 등 용어를 써가며 호남을 비하하느라 정신없다.

하지만,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17일 "이는 더민주 선거전략의 일부분일 뿐 맞는 분석은 아니다"며 "호남인은 이번엔 제1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또 무

시당할 것이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또 "더민주에 이번에 회초리를 들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도 안 되고,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호남과 상관없는 정권교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작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호남이 국민의당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더민주를 심판하면서 나타난 반대현상이지, 안철수 대표를 야권의 대선후보로 인정하거나 국민의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신임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의 정치적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 정권교체 가능성을 크게 하기 위해 3당 체제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SNS상에 떠도는 호남 총선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인기를 끄는 글이 있다. 외지인으로 영광에 17년째 살고 있는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씨는 "더민주의 호남 전멸은 사필귀정이다. 국민이 집권여당을 심판했듯이 호남인은 호남의 만년여당을 심판한 것이다. 정권교체하라고 판을 깔아주며 주위먹질 못하고 집권당이 갖은 망발을 일삼아도 제대로 문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이 국민의당에 불표를 줬다고 해서 안철수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호남인들은 안철수를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도구로 삼았을 뿐이다. 호남인들이 안철수를 호남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로, 정통야당의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세월호 참사 2주기 ... 진도 팽목항서 추모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도 팽목항과 광주, 안산,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진도 팽목항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엔 날씨 속에 진도군과 진도법률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세월호 사고 2주기 추모 및 기다림 행사'가 거행됐다.

추모식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추모객과 지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박지원·장병만·주

승용·김동철·권은희 의원과 박종영·송기서·김경진·최경환 등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정치인들도 함께했다. 팽목항에 도착한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임시분향소에 헌화한 뒤 팽목항 등대를 둘러보며 지난 2년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또 김 장관과 정치인들은 미수습자 가족의 손을 어루만지며 온전한 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추모 영상이 상영되자 눈시울을 적셨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노란 풍선을 하늘에 띄워보내기도 했다.

/진도 팽목항=김경민기자 kki@

여수 경도 매각되나

중국 대기업과 1조2천억 투자 협의

전남개발공사 협상 진행 중

중국 대기업의 여수 경도 매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합리조트 유치 사업에 탈락한 이후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추진 중인 경도의 매각 가격은 1조2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 투자가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광주·전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다. 전남개발공사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꾸준한 투자 의지를 갖고 전남의 중국 관광을 이끌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양지문 사장, 실무진 등이 지난 13일부터 16일 까지 중국 상해, 심양 등을 찾아 평강도 가운, 용원건설그룹, 신다그룹 등을 찾아 여수 경도 매각 협의를 진행했다.

양 사장 등은 경도 매입 의사가 있는 중국 기업들의 규모, 자금력 등을 현지

에서 평가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평강도가운 등은 골프장, 콘도 등 기존시설이 포함된 여수 경호동(대경도) 일원 308만2493㎡를 매입해 중국인 전용 타운하우스(별장) 500세대, 연수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유스호스텔, 의료 시설, 상업시설, 사후면세점 등을 짓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평강도가운 등은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에 여수 경도 투자자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공모 탈락 이후에도 투자 의지를 계속 표명했다.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일단 중국 현지실사 결과 이들 기업들이 자금력과 (경도를 운영할만한) 규모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투자 후 분양 수익만 챙기거나 투자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재추진

장병완 의원 "국회 재결의"

국민의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장병완(광주동남갑) 당선인은 17일 광주 한 식당에서 안철수 공동 상임대표, 광주·전남 당선인들과 함께 가진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임을 위한 행

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도록 국회 재결의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당선인은 간담회 직전 안 대표 등과 국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지정곡이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는 "보훈처장 등은 표면적으로 공식 지정곡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결

국 청와대 뜻이고, 청와대가 용인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진정으로 총선결과를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당선인은 "5·18 기념행사 때 일제히 제창하도록 식순에 확실히 못박아달라는 것이 시민 요구여서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지정곡 촉구 결의를 했는데도 무시했다"며 "기념곡 지정을 위한 재결의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6 내가슴愛약속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